

한국, 세계도시캠페인을 위한 노력

세계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이 9년 전 유엔총회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한 후, 세계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된 지역사회, 도시,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이 재해경감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소방방재청은 최근 몇 년간의 큰 개발성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재해위험관리 분야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와 소방방재청은 기후변화와 재해 및 안전에 대비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지역과 국가당국들을 돕는 UNISDR(UN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과 파트너 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소방방재청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도움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또한 주변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있었던 포럼에서 국내 7개 도시와 지방자치체당국 소속 주요 대표자들이 <안전과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행동강령> 초안개발을 위해 해외 8개국에서 온 대표자들과 함께 인천 송도신도시 내 UNISDR 동북아시아사무실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56개의 한국 도시들 및 지방자치체가 전 세계 1,713개의 지역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이 UNISDR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김계조 소방방재청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동북아 재해피해와 재해경감 기술공유에 관한 방재전문가회의에서 고위 정부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에서 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북아시아가 예측 불가능한, 빈도 수와 위험도가 높은 각국의 공통적인 재해 위험들에 함께 도전할 수 있었다. 또한 김계조 소방방재청장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날 재해전문가회의에 참가한 Dulamdorj Togooch 몽골 소방방재청장은 몽골정부가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효고행동강령 실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몽골은 재해관리에 관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민들의 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인적자원과 기술자원 및 재해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해위험평가역량을 발전시켰다.

중국 민정부 재해감소센터 소속 Kun Gao씨는 중국 내 한해 평균 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2천 오백만 가구들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며, 6백만에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화기준 48억 3천만 달러 가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받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규모의 피해이긴 하지만 현재 방대한 사회동원 및 기술발전, 다양한 지식적용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 재해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공공경영 발전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카지마 소이치 일본 내각부 국제협력재난관리사무소장은 효고행동강령은 재해경감을 대표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2011년 대지진이 발생한지 4년째 되는 해인 2015년에 일본 센다이에서 열리는 세계재해경감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위와 같이 동북아시아 내 수많은 성과들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에 세계가 효고행동강령에 참여하게 된 이후 상당한 진척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를 위해 제주도에 모인 주요 대표자들은 효고강령의 성과와 재해경감을 위한 2015년까지 계획된 강령에 관련해 많은 바 최선을 다해주었다.

하지만 훌륭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대체로 정책, 강령과 법률은 무계획적 도시개발, 빈곤과 취약한 생계수단, 생태계 축소와 같은 재해 위험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재해위험경감을 위해 2015년까지의 국제강령 안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85퍼센트까지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분배방법은 대체적으로 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악화의 지속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내년에 있을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는 앞으로 더 많은 생명들과 일자리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매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2억 명의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Sanjaya Bhatia 소장

UNISDR 동북아 사무소 및 국제재해경감교육훈련연수원(인천 송도)